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이 보 영**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최 효 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한 창 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약》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력장애와 시야결손 장애가 있는 총 676명을 대상으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가 높아질수록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시각장애인, 삶의 만족도,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매개 효과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18 과학기술 인문사회융합연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2018M3C1B6061353)

** 제 1저자(qhdud721@naver.com)

*** 제 2저자(hyojinchoi0906@gmail.com)

**** 교신저자(chkhan@skku.edu)

I. 서론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발달과 급속한 경제 발전 등의 이유로 과거와 달리 인구 고령화,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전체 장애 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 인구는 약 2,580,340명이며 특히 시각장애의 경우 대부분 유전성 및 후천적 안질환과 사고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장애에 비해 더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장애인실태조사, 2017).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시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판정 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 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 결손에 의한 시야 결손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 2조).

이처럼 시각장애를 포함한 전체 장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복지 수요의 다양화를 끌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의 발전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생활 증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문화여가생활은 생활만족도와도 관련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문화여가생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전리상, 오중희, 2009; 김성희 등, 2012).

문화여가생활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때 사회참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 사회참여란 문화여가생활을 포함한 일상생활활동 및 지역사회자원 등을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즉 문화여가생활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완전한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진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융합되어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인영, 2011; 유동철 등, 2016).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단지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모든 사회참여 및 활동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대체로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문화여가생활에 참여하는 비율은 비장애인들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문화 및 여가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49.3%에 불과하며, 주된 사회참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참여, 전시 관람, 여행 등의 외부활동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동기, 이웅, 2012; 유동철 등, 2016; 장애인실태조사, 2017).

다시 말해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과 이동성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이 집박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의 비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장애로 인해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동수단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되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통한 설계 기준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법제처, 201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상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장애 유형보다 문화예술 분야의 물리적 접근성과 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사회활동, 취미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화예술체험 등과 같은 사회참여는 무의미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수경, 이익섭, 2005; 문영민, 김원영, 2015; 고강호, 2016; 김선희 등, 201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집박 활동 시 불편 정도와 차별경험은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중에서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중심으로 집박 활동 시 불편 정도와 차별경험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사회적 차별에 더욱더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는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집박 활동 시 불편 정도와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시각장애인의 집박 활동 시 불편 정도 및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증진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박자경, 2009). 또한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종합해보면 개인의 욕구와 기대치가 얼마나 충족됐고,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며 (Neugarten et al, 1961; Cummins et al, 2002),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iener et al, 1985; Windle, Woods, 2004).

시각장애란 “시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7).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가생활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상원 등, 2018),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시각장애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숙, 오윤진, 2011). 또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연구(오종희, 전리상, 2007)에 의하면, 가족관계, 생활방식, 건강에 관한 요인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다른 요인보다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요인이 아닌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오종희, 전리상, 2007).

따라서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장애 그 자체보다는 개인이 그 장애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그러한 인식에 관련된 변수들이 무엇인지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이지수, 2007).

2.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과 차별 경험

시각장애인은 여러 장애 유형 중 이동 등과 관련된 물리적 접근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유형으로 보고 있다(오종희, 전리상, 2006). 이에 시각장애인들의 외부활동 접근권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종희, 전리상(2006)의 연구에서는 도로통행요인과 교통수단요인 모두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통행요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건강과 자존감 확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교통수단요인의 경우는 시각

장애인의 건강, 사회생활, 자존감 확보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통행요인보다 교통수단요인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물리적 접근권이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확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리상(2007)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을 각 하위영역별로 만족도를 조사하여 접근권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 도로교통, 공공·이용시설, 교통연결, 공중이용기기, 교통수단 5개의 하위영역의 만족도 전체 평균이 2.30으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참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장벽이 높음을 제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 각종 시설물, 교통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자아실현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가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마련된 기회의 참여 결과가 장애인 복지 수준의 평가에 더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이익섭, 1999).

이는 장애인들을 위한 여건 마련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련된 여건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물리적 제약을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지,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그 밖의 모든 생활 분야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인 특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기거나 제한당하고,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권선진, 2004). 이에 우리나라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 정의에 의한 장애인 차별은 입증 가능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별 범주가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선이나 호의적 차별 등 지각된 차별도 법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전지혜, 2009). 여기서 지각된 차별이란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차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당사자가 스스로 차별을 감지하였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전지혜, 2009).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별 경험 많을수록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현주, 강상경, 2009), 중증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숙 등, 2013). 이는 차별 경험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

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았다(이지수, 2011).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은라 등, 2015)에서도 차별인식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장애인들이 차별 경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현대사회에서의 여가생활과 문화생활 향유는 인간의 삶과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며,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한성, 이유신, 2014). 이는 많은 연구에서도 문화여가의 참여나 만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으로써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강미경 등, 2010; 남현주, 이현지, 2017; 김상원 등, 2018)

따라서 문화여가생활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며,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참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전리상, 오종희, 2009). 이에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의 문화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에 “문화예술 활동에서의 차별금지”가 규정되었고,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의 기회 확대라는 차원에서 예술작품을 생산하고,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차원으로 이동해갔다(문영민, 김원영, 2015).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여가생활은 동적인 여가생활보다 정적인 여가생활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덕중, 2003). 또한, 육근해(2001)의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여가나 문화생활의 필요 정도에 대해 전체 시각장애 응답자 중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 중 42.2%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앞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애인의 여가생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왔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장애 유형 별로 여가생활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시각장애인 경우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생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가생활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가생활에 참여할수록 시각장애나 여건의 한계를 더욱 의식하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제시되었다(강미경 등, 2010). 따라서 이는 장애인의 여가생활 참여와 삶의 질 관계에서 여가 만족도가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난 기존 연구결과(남현주, 이현주, 2017)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시각장애인의 여가생활에 있어서는 참여 여부나 횟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도 여가생활 참여로 인한 만족감과 같은 주관적인 평가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차별 인식,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외부활동은 자립적인 생활 유지와 사회참여를 위한 것이지만,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이 이들의 외부활동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물리적 환경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은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지만(오종희, 전리상, 2006), 특히 여가생활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중섭(2009)은 재가 장애인의 여가생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통이용의 편리함 정도나 외부활동의 편리한 정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등의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음을 언급하였고, 전리상(2007)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접근권에 대한 것은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부분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애인들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물리적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라고 보았다(김용득, 김미옥,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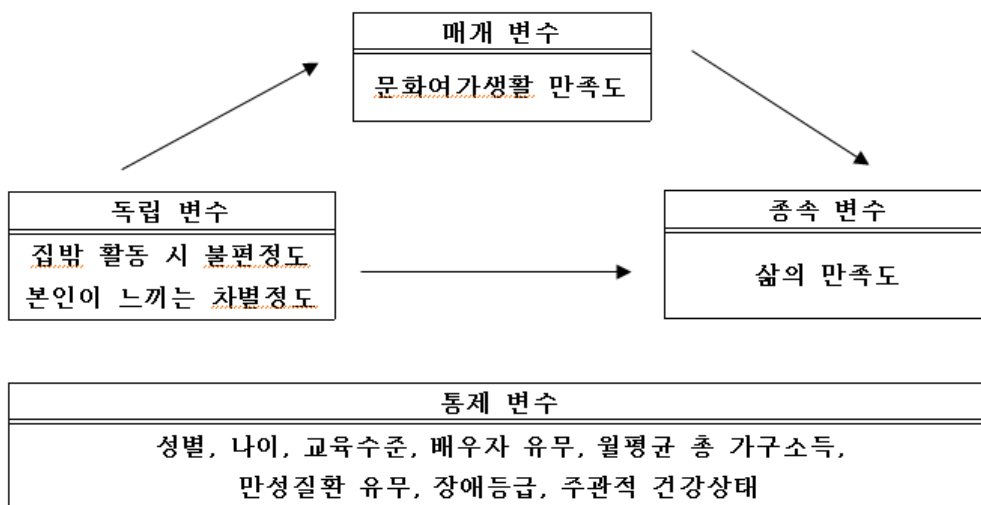
따라서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이현주, 강상경, 2009), 이는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았다(이지수, 2011). 이 외에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의 편견 및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김희국, 2010; 박현숙 등, 2013; 송진영, 김형모, 2014; 김은라 등, 2015). 이처럼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나 인식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이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이나 문화여가생활 등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통한 실천적, 이론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매개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독립 변수는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이며, 종속 변수는 삶의 만족도이고,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매개 변수로 사용되었다. 통제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평균 총 가구소득, 만성질환, 장애등급, 주관적 건강상태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 데이터 및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 인구 및 장애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장애 유형별 장애특성, 보건 및 건강 특성, 교육 특성, 경제적 특성, 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 등에 관한 통계 데이터를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실태조사의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장애인 실태조사 시계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장애인 출현율 추정을 위하여 장애인 및 비장애인 가구를 동시에 조사하였고,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보통 조사구)을 고려하여 ‘확률 비례 계통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 방법 및 조사수행 과정으로는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 방문 면접 조사로 이루어지며, 특히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으로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자를 만나 응답한 내용을 컴퓨터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장애인 6,549명 중 시력장애와 시야 결손 장애가 있는 676명만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변수 및 측정 도구

1)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에 관한 설문 항목에서 현재의 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총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9개의 문항 중 “귀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한 4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매우 불만족(1)”, “약간 불만족(2)”, “약간 만족(3)”, “매우 만족(4)”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 독립 변수: 집 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차별경험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집 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차별경험으로 장애인실태조사의 생활

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에 관한 설문 항목 중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의 2문항을 활용하였다. 먼저 첫 번째 독립 변수인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는 사회 및 문화·여가생활에 관한 설문 항목 중 “집밖 활동 시 어느 정도 불편을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4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전혀 불편하지 않다(1)”, “거의 불편하지 않다(2)”, “약간 불편하다(3)”, “매우 불편하다(4)”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는 “현재 귀하의 장애 때문에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한 4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전혀 느끼지 않는다(1)”, “별로 느끼지 않는다(2)”, “가끔 느낀다(3)”, “항상 느낀다(4)”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3) 매개 변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본 연구의 매개 변수는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사회 및 문화·여가생활에 관한 설문 항목에서 평소 문화 및 여가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총 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 문화 및 여가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한 4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매우 불만족(1)”, “약간 불만족(2)”, “약간 만족(3)”, “매우 만족(4)”으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4)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월평균 총 가구소득, 만성질환, 장애등급, 주관적 건강상태가 포함된다. 먼저 첫 번째 통제 변수인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더미화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통제 변수인 연령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세 번째 통제 변수인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 이상=4로 연속형 변수로 분석하였다. 네 번째 통제 변수인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로 더미화하여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 통제 변수인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여섯 번째 통제 변수인 만성질환은 만성질환 없음=0, 만성질환 있음=1로 더미화하여 분석하였다. 일곱 번째 통제 변수인 장애등급은 경증장애=0, 중증장애=1로 더미화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 통제 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1, 나쁨=2, 보통=3, 좋음=4, 매우 좋음=5로 리코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및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가 삶의 만족도와 관계에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 변수인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매개 변수인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종속 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상관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시각장애인이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매개 효과를 가지는가를 살펴보고자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 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매개 변수를 투입한 후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영향을 확인한 후,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시각장애인 6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독립 변수를 살펴보면,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는 거의 불편하지 않다 40.6%, 약간 불편하다 29.3%, 전혀 불편하지 않다 17.0%, 매우 불편하다 13.1%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 47.0%, 가끔 느낀다 25.4%, 전혀 느끼지 않는다 22.3%, 항상 느낀다 5.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를 살펴보면,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약간 만족한다 47.0%, 약간 불만이다 37.7%, 매우 불만이다 11.5%, 매우 만족한다 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약간 만족하다 56.2%, 약간 불만족한다 31.4%, 매우 불만족 한다 7.5%, 매우 만족한다 4.9%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이 56.8%, 여성이 43.2%로 남성 시각장애인이 여성 시각장애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경우 평균이 64.54세, 표준편차는 15.018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가 4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대학(교) 이상이 13.6%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유무의 경우 배우자 있음이 59.8%, 배우자 없음이 40.2%로 배우자가 있는 시각장애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 가구소득(만원)의 경우 평균이 221.94만 원, 표준편차는 177.312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78.8%, 장애등급의 경우 경증장애가 78.8%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이 있으며 경증장애의 등급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나쁨 36.5%, 보통 36.2%, 좋음 15.7%, 매우 나쁨 10.5%, 매우 좋음 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n=676, 단위: 명, %)

변수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여자	292	43.2
	남자	384	56.8
나이	평균=64.54, 표준편차=15.018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309	45.7
	중학교	98	14.5
	고등학교	177	26.2
	대학(교) 이상	92	13.6
배우자 유무 (n=672)	배우자 없음	270	40.2
	배우자 있음	402	59.8
월평균 총 가구소득 (만원)	평균=221.94, 표준편차=177.312		
만성질환	없음	143	21.2
	있음	533	78.8
장애등급 (n=660)	경증장애	520	78.8
	중증장애	140	21.2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71	10.5
	나쁨	247	36.5
	보통	245	36.2
	좋음	106	15.7
	매우 좋음	7	1.0
	평균=2.60, 표준편차=.909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계속) (n=676, 단위: 명, %)

변수	구분	빈도 (명)	비율 (%)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n=658)	전혀 불편하지 않다	112	17.0
	거의 불편하지 않다	267	40.6
	약간 불편하다	193	29.3
	매우 불편하다	86	13.1
	평균=2.38, 표준편차=.916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전혀 느끼지 않는다	151	22.3
	별로 느끼지 않는다	318	47.0
	가끔 느낀다	172	25.4
	항상 느낀다	35	5.2
	평균=2.13, 표준편차=.817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이다	78	11.5
	약간 불만이다	255	37.7
	약간 만족한다	318	47.0
	매우 만족한다	25	3.7
	평균=2.43, 표준편차=.742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한다	51	7.5
	약간 불만족 한다	212	31.4
	약간 만족한다	380	56.2
	매우 만족한다	33	4.9
	평균=2.58, 표준편차=.702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검토한 후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독립 변수 및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독립 변수의 경우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r = -.339, p < .01$)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r = -.240, p < .01$) 모두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변수의 경우 문화여가생활 만족도($r = .443, p < .01$)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제 변수의 경우 성별($r = .079, p < .05$), 교육 수준($r = .203, p < .01$), 배우자 유무($r = .253, p < .01$), 월평균 총 가구

소득($r = .253, p < .01$), 주관적 건강상태($r = .444, p < .01$)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r = -.161, p < .01$), 만성질환($r = -.152, p < .01$), 장애등급($r = -.219, p < .01$)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경우 상관계수가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가 .80 미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676)

	삶의 만족도	문화 여가생활 만족도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성별	만 나이
삶의 만족도	1					
문화 여가생활 만족도	.443**	1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361**	-.339**	1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236**	-.240**	.329**	1		
성별	.079*	.025	-.180**	-.014	1	
만 나이	-.161**	-.068	.295**	.018	-.173**	1
교육 수준	.203**	.092*	-.204**	-.141**	.284**	-.532**
배우자 유무	.253**	.096*	-.144**	-.103**	.273**	-.030
월평균 총 가구소득	.253**	.184**	-.233**	-.156**	.089*	-.347**
만성질환 유무	-.152**	-.076*	.260**	.037	-.137**	.478**
장애등급	-.219**	-.239**	.491**	.253**	-.069	.057
주관적 건강상태	.444**	.220**	-.409**	-.161**	.183**	-.398**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속) (n=676)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월평균 총 가구소득	만성질환 유무	장애등급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문화 여가생활 만족도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성별						
만 나이						
교육 수준	1					
배우자 유무	.167**	1				
월평균 총 가구소득	.324**	.227**	1			
만성질환 유무	-.255**	-.044	-.285**	1		
장애등급	-.066	-.124**	-.080*	.106**	1	
주관적 건강상태	.294**	.109**	.288**	-.382**	-.157**	1

* $p < .05$, ** $p < .01$, *** $p < .001$

3.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와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그 영향을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 효과 분석방법 3단계를 활용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2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5.497, p < .001$).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 변수의 경우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beta = -.182, p < .001$)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beta = -.082, p < .05$)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집밖 활동에 불편함 정도가 높고, 차별을 많이 느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15.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873, p < .001$).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 집밖 활동에 불편함 정도가 높고, 차별을 많이 느낄수록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독립 변수의 경우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beta = -.243, p < .001$)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beta = -.116, p < .01$)는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동시에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독립 변수, 통제 변수, 매개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모두 포함된 연구모형의 설명력은 36.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33.009, p < .001$).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 변수의 경우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beta = -.108, p < .05$)가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beta = -.047, p > .05$)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 변수인 문화여가생활 만족도($\beta = .304, p < .001$)가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면 완전 매개 효과,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 상관이 유의미하게 남아있다면 부분 매개 효과라고 추정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를 부분 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통제 변수의 경우에는 배우자 유무($\beta = .183, p < .001$), 주관적 건강상태($\beta = .288, p < .001$)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beta = -.068, p < .05$)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이, 교육수준, 월평균 총 가구소득, 만성질환 유무, 장애등급은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시각장애인이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및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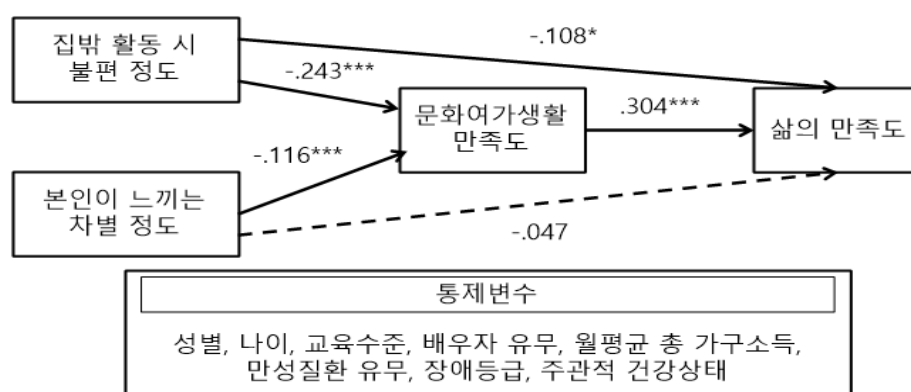
구분		1단계 (X → Y)		2단계 (X → M)		3단계 (X, M → Y)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상수	1.868		2.449		1.178	
	성별	-.110	-.080*	-.056	-.038	-.094	-.068*
	나이	.005	.111*	.005	.107*	.004	.078
	교육수준	.038	.064	.018	.028	.033	.055
	배우자 유무	.260	.188***	.027	.018	.253	.183***
	월평균 총 가구소득	.000	.096*	.000	.103*	.000	.065
	만성질환 유무	.007	.004	.045	.025	-.005	-.003
	장애등급	-.023	-.014	-.109	-.060	.008	.005
	주관적 건강상태	.237	.316***	.074	.091*	.216	.288***
독립 변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134	-.182***	-.194	-.243***	-.079	-.108*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068	-.082*	-.104	-.116**	-.039	-.047
매개 변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282	.304***
R^2 (adj R^2)		.289(.277)		.159(.146)		.367(.356)	
F		25.497***		11.873***		33.009***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는 Z 값이 -4.417로 $|Z| > 1.96$ 에 해당하므로, 유의수준 .001에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부분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각장애인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매개 효과 검증 결과는 Z 값이 -2.745로 $|Z| > 1.96$ 에 해당하므로, 유의수준 .01에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의 매개 효과 Sobel-test 검증

매개 효과 경로	Z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삶의 만족도	-4.417***
시각장애인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 →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 삶의 만족도	-2.74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검증된 연구모형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매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력장애와 시야 결손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 총 676명을 대상으로 매개 효과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 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이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 물리적인 접근성과 이동성의 불편 정도가 높아지고, 사회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따라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외부활동 접근권과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오종희, 전리상, 2006; 박현숙 등, 2013).

둘째,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는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이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 물리적인 접근성과 이동성의 불편정도가 높아지고, 사회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따라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여가생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접근권을 중시하고,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각종 사회활동 등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전리상, 2007; 문영민, 김원영, 2015).

셋째,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취미생활 등과 같은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여가생활과 문화예술 참여가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요소의 하나로써 강조하고 있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전리상, 오종희, 2009; 김선희 등, 2019).

넷째,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시각장애인 본인이 느끼는 차별정도의 경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과 고정관념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 문화여가생활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증진시켜야 하고, 결국 이러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이익섭, 1999; 김상원 등, 201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가 가지는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매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여가생활의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과 이동성, 사회적인 인식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시각장애인이 집밖 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속적으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성된 환경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특성상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나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과 같은 관련 기관에서 시각장애인의 발달과정에 따라 일상생활 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측면의 접근들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이 아무리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인식과 고정관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장애인들은 차별을 경험하고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운동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여가생활 가능성을 높이고 참여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융합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시예술품 감상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또는 욕구 조사 등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 향유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선희 등, 2019; 이양희 등, 2019).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전시예술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전시 공간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하거나, 정보 접근성을 위해 감각 정보를 활용한 보조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기술 혁신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김인철 등, 2007; 허예내, 2008). 이와 같은 융합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좀 더 시각장애인의 관점을 고려한 문화여가생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함의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불편정도와 본인이 느끼는 차별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횡단 분석하여 검

증을 실시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종단연구 또는 질적 연구, 인터뷰 등의 기법을 활용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경우, 2차 데이터의 특성상 단일 문항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에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인구 사회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집박 활동 시 불편정도, 본인이 경험한 차별정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외에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면 좀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설문에 응답한 총 6,549명 중 시력장애와 시야 결손 장애가 있는 총 676명의 적은 표본만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2차 데이터들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표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유형 중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문화여가생활 만족도가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 강미경, 이동진, 유가효. (2010). 장애인의 여가생활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5), 137-155.
- 고강호. (2016).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시각장애연구**, 32, 49-66.
- 권선진. (2004). 장애인 차별실태와 인권의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3), 59-75.
- 김동기, 이웅.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29-147.
- 김상원, 엄문설, 안새미, 이양희, 조준동. (2018). 시각장애인의 스트레스, 여가생활,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시각장애연구** /34 (1), 25-39,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 김선희, 엄명용, 조준동. (2019).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전시예술품 감상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재활복지**, 23, 105-139.

- 김성희, 권선진, 강동욱, 노승현, 이민경, 이송희. (2012).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 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 김용득, 김미옥. (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동풍. 374-398
- 김은라, 박재국, 박량은. (2015). 지체장애인의 차별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1), 27-54.
- 김인철, 정철오, 김용성. (2007).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공간의 스마트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 시각장애인 행태분석을 통한 체험공간구현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4), 55-62.
- 김진훈, 이달엽, 이종정. (2018). 장애인의 경제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문화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1), 415-440.
- 김한성, 이유신. (2014). 장애인의 가구소득과 취업여부가 여가생활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4(4), 146-171.
- 김희국. (2010).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와 편견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1(2), 63-84.
- 남현주, 이현지. (2017). 장애인의 여가생활 참여와 여가만족, 삶의 질과의 관계, 재활복지, 21(1): 121-140.
- 문영민, 김원영. (2015).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 재활복지, 19, 99-128.
- 박수경, 이익섭. (2005). 시각장애노인의 사회통합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 복지학, 5-34.
- 박인영. (2011).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가 장애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자경. (2009).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모형 구축 및 검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 대학교.
- 박현숙, 손민정, 송진영. (2013).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 수용의 매개효과 및 대인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1), 55-76.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송진영, 김형모. (2014).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4(1), 199-225.
- 오종희, 전리상. (2006). 시각장애인의 접근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로통행과 교통수단요인을 중심으로.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 6, 78-91.

- 오종희, 전리상. (2007).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4(1), 17-36.
- 유동철, 김동기, 김경미, 신유리. (2016). 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장애 정체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육근해. (2001).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윤덕중. (2003). 시각장애인의 여가생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 논문. 목원대학교.
- 이병화, 이송희. (2016). 장애인이 지각한 사회적 차별경험이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 생활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2), 227-257
- 이양희, 김상원, 엄문설, 안새미, & 조준동. (2019). 시각장애인의 전시예술품 관람 욕구조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1), 457-466.
- 이익섭. (1999). 장애인 사회통합의 지수개발과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8, 206-233.
- 이중섭. (2009). 재가 장애인의 여가생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복지**, 13, 111-140.
- 이지수. (2011). 차별경험과 자기 낙인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1), 277-299.
- 이지숙, 오윤진. (2011).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 관계연구. **시각장애연구**, 27(4), 39-57.
- 이현주, 강상경. (2009). 장애인의 스트레스, 심리·사회적 자원 및 우울의 관계- 한국복지패널 장애인 부가 조사를 이용하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3, 193-217
- 전리상. (2007). 시각장애인의 [물리적 접근권]에 대한 인식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4, 1-16.
- 전리상, 오종희. (2009). 장애인 여가 문화적 여건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 9, 73-93.
- 전지혜. (2009).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perceived discrimination)"의 개념화와 법적 적용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99-425
- 허예내, 정한경, 김미영. (2008). 시각장애인 정보화 접근성을 위한 보조도구에서의 감각 정보 활용 사례분석. **디지털디자인학연구**, 8(2), 233-245.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Cummins, R. A., Gullone, E., & Lau, A. L. (2002). A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In E. Gullone & R. Cummins (Eds.), *The Universality of Subjective Wellbeing Indicators*(pp. 129-149).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 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Windle, G., & Woods, R. T. (2004). Variations in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resource. *Aging & Society*, 24, 583-60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www.kbuwel.or.kr

The Impacts of Inconvenience of Outside Activity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Visually Impaired :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Culture and Leisure Activity

Lee, Bo-Young

Sungkyunkwan University

Choi, Hyo-Jin

Sungkyunkwan University

Han, Chang-Keun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inconvenience of outside activity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fluence life satisfaction of the visually impaired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is mediated by satisfaction of culture and leisure activity of the visually impaired. This study employs the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17. The sample size of this study is 676 who are visually impaire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we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nd Sobel test. Ke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visually impaired experiencing the inconvenience of outside activity and discrimination are likely to have lower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inconvenience of outside activity and discrimination were found to lower satisfaction in culture and leisure activity among the visually impaired. Third, we found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in culture and leisur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visually impaired. La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nvenience of outside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satisfaction in culture and leisure activity. In addition, satisfaction in culture and leisure was found to have ful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visually impaired. This study concludes with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ractice.

Key Words: *The visually impaired, life satisfaction, inconvenience of outside activi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mediating effect*

논문 접수 : 2019. 12. 16 심사 시작 : 2019. 12. 17 게재 확정 : 2019. 12. 30